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 1:1-14)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면 안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 이것을 잡으면 기도 안하고도 응답된다. 이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기도가 오히려 종교가 되어 버린다. 이것이 포인트고 핵심인데 기도를 가지고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니 안되는 것이다. 진짜 눈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사실은 마음대로 안된다.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발버둥도 많이 쳤다. 지금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법 큰소리도 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인생 살고 공짜 인생 살수 있다. 복음은 공짜 아닌가? 거기 안가면 구원은 받지만 인생은 항상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로 사는데? 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그 기도가 노력인가 연약인가 따져야 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액기스만 기록해놨다. 우리 모두가 답나기 바란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응답되고, 가만히 있어도 꺾창다는 답이 나와 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전부 좋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하고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린다. 체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답이 나와 한다. 우리는 올해로 20년이 되는 해이다. 2002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서 20년동안 교회를 유지해왔다.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문들도 열어주셨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4대 기도제목으로 여기저기 문들도 많이 열어주셨다. 특히 남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증거도 주시고 이제는 진짜 시작이라는 단계를 주셨다. 우리가 몇가지 영상으로 봤는데, 앞으로 남미에는 많은 제자들도 일어서고 문도 열릴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제목 있는데로 남미끝까지 가는 교회가 될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에도 상당한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사실은 복음운동을 20여년을 했지만 아직도 미국과 미국교회에 문을 열었다고 볼 만한 교회가 없다. 나는 미국의 현장중에서도 미국 교회가 제 1현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한 복음과 전도가 전달된 교회가 없다. 분명히 미국교회는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연적으로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힘으로 들어오는 사단을 이길수가 없는 것이다.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정말 복음이 있으면 교회의 외부 세력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된건 분명히데 아직까지도 미국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미국교회는 변질을 받아들이고 있다. 내 눈에는 자기가 받아들인 변질이 틀린줄 알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는 논리나 개발하고 있다고 본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이 없으니 영적 힘이 없고 정치적 힘을 이길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다. 사단은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고 나타나서 교회를 깨고 핏박을 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교회가 이래도 많은 교회가 숨어 있고 목사님들중에서도 사명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교회에 하나님이 많이 문을 여실것이라고 믿고 인디안 선교에도 문을 많이 여실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작이다. 그래서 미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미국교회 살릴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 우리 중에 미국교회를 두고 평생을 두고 생생걸 렘넌트가 나오면 평생 지원할 것이다. 이를 두고 정말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제자가 붙여져도 그 사

람을 제자로 양육할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단순한 전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음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 전도조직을 형성할수 있을만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한다. 과연 이 시간표를 두고 무슨 기도제목을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행사도 잘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는 20주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1.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신 기록이다. 11절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만일 우리가 있었으면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대화중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 대신으로 오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이 나와 한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 기준이다.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필요없다. 기준은 이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것을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이 반쪽 나도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마태복음 6:33절은 니가 이것을 하면 그냥 응답받는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 보고 답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뜻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 출발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개를 기록하고 있다. 1-2절 사이에 그리스도이다.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8절에 성령 충만과 증인이다. 11절에 오직 기도이다. 1-2절은 누가복음을 이야기 한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1-2절에 써놓기를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 복음에 기록해뒀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모든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다. 응답 받으면 저주를 정복한다. 그리고 응답이 안되어지면 아무리 소리질러도 저주가 정복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인생과 세상을 정복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나머지 세 개에 대한 근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로 전도와 선교이다.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다.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 못 누린다. 성령 충만도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충만이다. 그리스도 없이 따로 성령충만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부작용난다. 입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나오는데 능력은 귀신의 능력이다. 14절의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마태복음 6:33의 결론은 내가 너의 언약이고 너의 기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언약으로 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사단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임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간단하고 쉽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힘이 든다. 왜냐하면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으로 막바로 못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야 한다. 그리스도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 힘들다. 차라리 그리스도 충만으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쉽다. 그러면 성령충만으로 갈 것도 없다. 성령 충만 이미 된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고 싶다. 그러나 성령충만은 그리스도 없이는 독단적으로는 안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주시는 것이다. 마가다락방 120명 그리스도에 답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 언약으로 기도했다. 거기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충만이 있다. 깊은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언약이 그리스도이고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은 그리스도 뿐인데 이것 없이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만나겠는가? 그리스도 없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언약 되기 바란다.

2. 제한적 집중

류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이런 단어들 들었을 것이다.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표현을 했는가? '편협된'이라는 표현을 했다. 류목사님 외삼촌이 목사였다. 집안의 반대를 피해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졸업했는데 나는 목사하겠다고 하고 1호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류목사님 집회하고 보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류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외삼촌도 유능한 목사였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목사가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가만히 있는데도 모이는 것이다. 어째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냐고 하루는 외삼촌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때 류목사님이 한 답변은, 외삼촌은 다양한 것을 하지만 나는 편협된 것, 한 개만 한다고 했다. 편협된 것, 이 말이 이제 와서 다른 단어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한된 집중이다. 여러개 안하고 한 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현장에 되어 져야 한다. 그러면 성경같은 인생이 된다. 우리 모두가 성경같은 인생 되기 원할 것이다. 그걸 원하지 않는 분이 있는가? 있으면 손들어 보라.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번져서 온데로 돌아다닌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개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응답받는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도 다양하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도 많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생각과 계획이 아주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많은 것을 해야지만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것에 집중하다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이 안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성공한다. 하나님과 나는 대결할 상대가 아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무조건 나를 죽여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나는 좀 알레르기 반응인지 모르지만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물론 내가 회개한다. 그때 내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 상식을 몰라서 바보같은 짓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 아주 악한 인간이다. 아주 진짜 그렇게 하면 안되는 짓을 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나면 우리가 미국 문화 배워야 할 것 많이 있다. 그러나 절대 배우면 안되는 것이 많다. 그중에 아주 부정적인 것이 개인주의이다. 개인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너무 좋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 이것을 통과해버렸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 가냐면 하나님에게 대든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총쏘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내맘에 안들면 찢어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을 예사로 하고 문

화가 되어 버렸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다. 그것 틀렸다. 큰일날 일이다. 자기가 죽는 일이다. 그런 인간은 본질이 있으면 주위에 뽕뽕들다가 평생 자기를 합리화하다가 죽는 것이다. 말이 센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깨야 한다. 안 깨면 응답 못받는다. 맨날 뽕뽕 주위에 돌다가 죽는다. 저도 좀 그런식에 들어가는데 우리 중에 보면 잘난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에게만 잘난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잘난 소리 한다. 나도 인간이 좀 교만하다. 고쳐야 한다. 지 죽는 것이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이유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맞는 것 같아도 말씀과 틀리면 그건 안된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런 방식 외의 모든 것은 종교이다. 결국은 속은 것이다. 결국은 사단에게 당한 것이다. 적어도 많이 백보 양보해서 말해도 승리하는 삶은 없다. 그냥 맛있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다니엘 1: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다.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일 안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평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이것이라고 정했다. 뜻을 정한 것이다. 열왕기하 2:9절 잘 아는데로 엘리사 뜻을 정했다. 다른거 필요 없고 갑절의 영감 이거 하나로 끝. 답이 난 사람이다. 오직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답이 났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했다. 이유를 알고 있다. 대부분은 이유를 듣고 있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알아야 한다. 좋은 소리 설교같은거 보면 나는 성질이 못되서 거 거 잘 못한다. 답 나와야 한다. 나도 아직 완전 답 난거 아니다. 은혜로 그 과정에 넣어줬다. 발버둥 치고 몇 년 지내오는 사이에 상당한 증거를 줬다. 물론 근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제자가 붙여져야 하지만 지금 제자를 붙여주면 또 다른 제자로 키울 자신이 나는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발버둥 속에서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는가?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요셉에게는 그 꿈이 평생의 언약이었다. 그것을 잊어버릴수 있겠는가? 거기에 평생 집중했다. 한나는 아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어느날 나실인 주셨다. 죽어도 잊지 못할 언약이다. 당연히 집중 거기에 했을 것이다. 사무엘을 보내놓고도 거기에 집중했을 것이다. 올인 한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한 두사람이겠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한적 집중을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따라 말하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오직 기도. 다른 말로 하면 237, 치유, 서밋.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메세지 4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 모든 단어는 그리스도 하나가지고 다 통한다. 여기에 우리가 제한적 집중을 해야 한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집중할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집중을 딱 해야 한다. 안되어지는 이유는 사단이다. 흑암세력 꺾으려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문제를 당할수 있다. 힘써서 열심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집중할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 잘 안되어 거기에 놀려서 기분나쁜 소리 들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집중할 것이 아니다. 그건 통과해야 한다. 오히려 이해하고 수용하고 끝내버려야 한다. 그 모든 생각을 당연히 다 버려야 한다. 한가지에 집중이다. 그것을 제한적 집중이라고 표현했다. 전에는 나는 아주 편협된 것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흑암 세력 꺾인다. 하나님 나라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질 것이다. 인생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응답이 쌓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응답 한번 받고 끝나는 응답이 아니다. 전도도 한사람 전도하고 끝나는, 일대일 전도만 맨날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다. 전도가 쌓여야 한다. 그래야 힘이 된다. 그래야 지역을 정복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생을 내가 정복하고 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제자가 들어와서 팀 사역 전도의 비밀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24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란다.